

教養教育和 專門教育의 調和

卞 烘 圭

(教育開發院 責任研究員)

I. 問題의 所在(獨逸식 對 美國식 傳統)

K. Jaspers는 그의 有名한 「大學의 理念」(1946)에서 大學은 세가지 要求를 充足시켜 주어야 하는 바 그것은 ① 特殊한 職業을 위한 教授나 訓練과 ② 教養教育 및 ③ 研究이며, 따라서 大學은 專門職業學校(Fachschule)로서뿐 아니라 教養의 世界(Bildungswelt)로서, 나아가 研究場所(Forschungamstalt)로서의 役割을 遂行해야 한다고 規定하여 現代大學의 方向을 分明히 해 주었다. 그러나 나라마다 大學이 이러한 機能과 役割을 다하려는 過程에 있어 끊임없는 진통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歷史적으로 볼 때 初期大學은 分明히 哲學을 모든 學問의 上位에 두는 이른바 人文主義의 大學으로 成長하면서 學問의 自由와 大學의 自治라는 基礎에서 社會批判과 文化創造를 營위하는 自由精神의 培養을 그 使命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今世紀에 이르러 밖으로는 國家社會의 要請에 따라, 안으로는 學問自體의 分化和 專門化, 職業化에 따라, 또 科學的, 技術的, 應用的 및 實用的 教養의 需要에 따라, 다시 民主化에 따른 大衆의 傾向에 따라, 前 California 總長 C. Kerr(1964)가 指摘한 바와 같이 大學은 史上 類例없는 量的 擴大(大學人口, 캠퍼스, 知識技術, 授業의 機械化等에서)를 이룩하여 university에

서 multiversity로 변모하였고, 一般大衆의 서비스 센터로 바뀌었으며 그 結果 大衆教育(mass education)이 一般化되자 大學의 「教育」은 後退하고 오히려 「經營」이 前面에 나타나는 새로운 現狀을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初期大學은 日帝下에서 學問的 要求를 優先하는 人文主義의 獨逸식 傳統에서 發展하였다. 그러나 解放後 社會的 要求가 強調되는 美國식 大學으로 改編됨으로써 傳統의 學問 要求와 새로운 社會要求間의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원초적 問題要素를 內包하게 되었다. 즉 解放後 우리 大學은 形態적으로는 美國식이지만 實質적으로는 獨逸식을 답습하려는 傾向 때문에 形態와 實質, 또는 안(裏)과 밖(表) 사이의 모순과 갈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綜合大學(University)이라는 機構속에서 形式的 事務的 으로는 Jaspers가 指摘한 研究, 教授 및 教養의 3機能을 綜合하고 있으나 實際적으로는 그들의 有機的 統合을 期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모든 大學問題의 源泉의 要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 教養教育和 專門教育의 主要對立 要因

1. 편협된 自由教育觀

美國식 大學이 導入되면서 나타난 가장 代表的 特徵의 하나가 教養教育의 부과라는 事實에서 發見되어 한때 그 참신함을 보이는 듯 했으

나 大學의 커리큘럼 運營에서 그동안 가장 많은 陣痛을 겪게 한 것이 바로 敎養教育 때문이었으며 그것은 恒常 專門教育과의 關係에서 對立이 되어 왔다. 이 對立은 무엇보다 敎養教育이 그의 明確한 概念 또는 性格을 究明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特히 自由教育(liberal education)으로만 限定시키려는 主張때문에 갈등이 야기된 것이다. 人文主義 傳統에 바탕을 둔 自由教育이 “無知나 편견 또는 편협에서 벗어나 自由롭고, 賢明하며 自主의 意思決定을 할 수 있는 自由人”(Woodring, 1972)을 養成한다거나 “참다운 인간이 되도록 解放시켜 주는 敎育”(Hesburgh, 1981)은 마땅히 敎養教育의 內容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現行 우리의 敎養教育은 지나치게 敎科的 概念에 支配된 自由教育으로 흐르는 傾向이라는 點에 問題가 있다. 自由教育은 원래 貴族이나 紳士階級을 위한 特權階級教育으로 限定되었기 때문에 大衆性 普遍性을 度外視하는 傾向을 보일 뿐 아니라 自由教育의 根本理念보다 傳統의 7自由學科에 터잡은 敎科目全體에 치중하여 人間의 成長을 等閑視할 위험이 있다. 그 밖에 自由教育은 衆명한 少數學生을 對象으로 하여 그들의 知性的 開發에 主眼을 두려하기 때문에 多數의 덜 衆명한 學生을 相對로 하여 社會와의 關係下에서 知性만이 아닌 學生의 全體의 性格의 發達이라는 重要性을 소홀히 할 可能性이 있으며, 또 그것은 高等學校나 大學時期에 限定한 眼目에서 이루어지는 敎育이기 때문에 國民學校에서 大學院, 成人에 이르는 全生涯를 基準하여야 할 必要性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敎養教育으로서 편협하고 脆弱한 概念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大學의 現行·敎養教育은 이미 안고 있는 元初적 要因과 더불어 敎科目 위주의 自由教育으로 解釋되어 부과되는 傾向이 濃厚하며, 따라서 위와 같은 弱點도 보이면서 實用性이 희박한 敎科 또는 知識體系로서 學生에게 加重負擔을 주는 것 밖에 되지 않으며 結局은 專門教育을 妨害하고 專攻學點을 侵害한다는 理由로 排擊되는 狀況에 놓여 있다. 現代 우리나라 大學의 敎養課程은 全體敎育課程의 30%線에서 人文, 社會, 및 自然의 3系列中 應分の 敎科를 履修시켜 學點化되도록 되어 있다. 오늘의 社會의 知

的 與件에서 敎養教育이 強力히 要求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좁은 自由教育의 特性을 지닌 敎科에 限定될 수 없고 自由人으로서의 知性과 함께 바른 行爲(right conducts)를 하는 性格特性까지를 要求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2. 學部에 集約된 大學敎育觀

우리나라 大學에서 敎養教育과 專門教育이 調和되지 못하고 있는 또하나의 重要한 理由는 學部(under-graduate)에서 大學의 모든 機能을 다 遂行해야 한다는 思考때문이다. 가령 美國의 境遇를 보면 學部和 大學院이 明白히 區分되어 있다. 美國의 大學院은 19世紀 後半부터 普及 擴充되어 學部에서 遂行하는 學部課程(under-graduate course or instruction)에 對應하는 것으로서의 專門教育(professional education)을 實施하고 있다. 그래서 大學(university)의 「研究」나 「研究者 養成」의 任務는 主로 business school이나 post-graduate school에서 擔當하는 것으로 理解되고 있다. 反面 學部는 一般的인 「敎育」機關으로 存續하는 方向을 取하고 있으며, 오늘날 liberal arts college가 4年制 大學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分化된 形態인 community college가 擴大되고 있는 것은 곧 그러한 緣由에서이다. 이렇듯 instruction이나 education은 學部課程에 연결되고 여기에서 除外된 나머지 部分이 大學院의 責任領域이라는 區分이 매우 鮮명한 것이 美國의 大學制度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學部가 大學의 모든 機能을 複合적으로 擔當하는 制度로 認定하여 敎育과 敎養뿐만 아니라 敎授의 研究와 研究後繼者의 選拔및 養成까지를 遂行해야 한다는 생각이 大學社會를 支配함으로써 敎養教育과 專門敎育의 對立을 深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研究의 傾向이나 風土가 學部課程에서 전혀 無視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美國식 大學의 模型이 基礎가 된 制度下에서는 그와 같은 學部觀에 無視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 英國이나 獨逸의 大學制度下에서는 美國과 달리 學部가 比較的 專門化(specialized)되어 있어 傳統의 古典의 人間形成을 戒하면서도 다른 한편으

로 研究者 養成이라는 任務을 部分的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基本體制에서부터 원래 다르게 指向되어 發展되고 制度化된 英國 또는 獨逸의 大學은 美國의 그것과 크게 差異가 있다는 점을 認定해야 할 것이다. 즉 學部가 大學院 教育까지 深奧하게 接近하는 모습에서 大學의 實體를 찾으려 하는 것은 現行 大學의 大學制度下에서는 問題가 있으며 그것이 教養教育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重要要因이라는 점을 理解해야 할 것이다.

3. '教育' 對 '學問' 의 是非

大學에 부과되는 가장 現實的 要求는 學生의 職業을 위한 教育과 訓練이다. 學生은 누구나 一次的으로 職業을 追求하는 바, 그 職業은 다분히 專門化 또는 分化되어 있어서 專門教育과 職業教育을 받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善良한 市民이 되기를 期待하는 民主主義 國家라 해서 專門教育이 否定될 수 없으며 그것은 個人과 社會를 위해 반드시 必要한 特殊 教育領域이다. 그런데 흔히 專門教育만이 學問으로 理解되어 여기에는 高尚하고 深奧한 무엇이 介在하고 權威가 따른다고 느끼는 것이 一般的 現狀이다. 反面, 教養教育은 學問이 아니고 文字 그대로 獨特한 뉴앙스를 지닌 「教育」으로 看做됨으로써 學問과 教育間의 是非로 登場하는 傾向이 있다. 더우기 「學問」은 學習者의 自然的 選擇에 依해 事物 또는 眞理를 깊이 追求한다고 보는데 反해 「教育」은 學生自身의 選擇보다는 他人에 依해 選擇되고 他人에 依한 保護와 指導로서 遂行되며 그것은 반드시 事物이나 眞理를 前提로 하지 않는다는 假定에서 前者와 區別하려 한다. 그래서 「教育」은 自己選擇力이 없는 幼兒나 少年의 初中等教育으로 連結시킴으로써 幼稚하고 水準이 낮아서 崇高하지도 못하고 權威도 없다는 評價를 한다. 이러한 假定에서 專門教育은 當然히 學問의 領域이고 對象이지만 教養教育은 「教育」의 課題에 該當된다고 解釋하여 取扱하려는 傾向이다. 그 위에 學問은 教科的인데 反해 「教育」은 반드시 教科的이 아닐뿐 더러 教科를 利用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價值觀, 態度, 또는 그 밖의 行動特徵의 變化를 標의으로 한다는 正常的 解釋을

하면서도 大學의 使命은 學問연마이기 때문에 教養教育은 排除되어야 한다는 主張에서 輕視되어 진다.

確實히 教養教育은 學問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前記한 情意的 特徵을 지닌 普遍的 全人을 위한 教養이며 人間形成에 直結되는 것을 目標로 하는 課程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教養은 專門教育을 오히려 完成시킬 수 있는 利點이 있으며 極度の 現代的 細分化를 克服하는 道具로서 不可缺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醫師志望生에게 있어 그는 醫師가 되기 위해 生理學, 解剖學, 藥學 등 많은 專門知識과 關聯된 技術을 익혀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훌륭한 醫師가 되지 못하며 醫師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思考方式, 價值觀, 態度등을 익혀서 醫術은 仁術이며 그 職業에는 어느 程度의 自己 희생을 감수해야 하며 돈보다 人命과 社會를 重視하는 信念과 態度를 익혀서 痲사 正常的인 醫師家庭의 雰圍氣가 스며있는 醫學徒처럼 成長시키는 것이 教養教育의 任務라면 그것은 醫師專門教育을 위해 不可缺한 側面的 教育이다. 그러나 大學이라는 學問의 殿堂에서 위와 같은 意味의 「教育」의 措置를 拒否한다면 그것은 結局 專門教育 自體의 未完成 또는 不完全을 초래하는 處事가 되는 셈이다. 大學은 教養教育의 바른 受容에서 그가 지닌 專門教育의 機能을 完遂할 수 있을 것이다.

4. 教養教育 方法上的 困難

教養教育이 教科的 道具를 利用하건 안하건 相關없이 그것이 指向하는 궁극적 到達點이 情意的 特性的 培養이라 할 때 그것은 學問的 性格이 아니라 理由로 拒否되는 背後에는 흔히 그것이 養成方法上 困難이 있다는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實際에 있어서 知識이나 技能의 熟達은 間接的이건 直接的이건 우리가 肯定할 수 있는 水準에서 把握될 수 있는데 反해 價值觀, 態度 또는 그밖의 行動特性들은 그 概念도 不分明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訓練 혹은 發達시키며, 그 成就與否를 어떻게 評價할 것인가에 對한 方法이 明確하게 開拓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Stanford 大學의 Robinson(1981)은 사람의 幸福에 決定的으로 重大한 役割을 할 側

面이 敎養敎育이며 學生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게 될 種類의 敎育이 바로 그들이 가장 非實際的이라 생각하는 敎養敎育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것을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답을 지니지 못해 유감이나 아마도 生活 그 自體가 가장 唯一하고 진정한 敎師가 될 것이라 한다. 生活속에서 하루하루의 生存과 관련된 問題를 가장 知的이며 깊이 있게 접하며 自己보다 영리하고 훌륭한 他人에게서 나온 바람직한 性格特性이나 行動體系를 스스로 發展시키는 狀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最善의 敎養敎育의 길이라 한다. 大學은 이러한 生活속의 敎養敎育의 方法을 과감히 導入할 必要가 있다.

最近 日本이나 美國에서는 이러한 敎養敎育의 方法上的 難點을 解決하고 그 本質的 趣旨을 살리기 위해 이른바 統合敎科(integrate course or subjects)의 開發이 活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統合敎科는 敎養敎育과 專門敎育을 融合·結合할 목적으로 두 科目을 包含한 全體의 大學敎育이라는 맥락에서 여러 領域이 關聯된 共通敎科를 開發履修시킴으로써 從來와 같은 敎科間의 嚴格한 境界를 유연하게 하며 學生自身的 學習意欲도 높이고자 試圖된 努力이며 이는 하나의 커리큘럼 自由化(liberalization) 運動이다. 이러한 努力이 우리나라에서도 要請되며 이를 위해 特別히 敎授들의 積極的 參與가 要望된다. 그리하여 Syllabus의 相互批判이나 他敎授의 研究授業 參觀, 또는 評價와 텍스트開發에 共同努力을 기울일 수 있다면 그만큼 敎養敎育과 專門敎育의 갈등은 解消될 것이다.

Ⅲ. 大學改革을 要求하는 새로운 勢力

한층 빠르고 深化된 現代社會의 急變性은 既存의 大學敎育에 對해 여러가지 勢力으로 挑戰하고 있다. 前記 Kerr가 主導하는 美國 Carnegie 高等教育委員會가 近年에 이러한 勢力을 다섯가지로 說明한 바 있다.

즉 첫째 勢力은 敎育機會의 擴大로 因하여 大學卒業者가 激增하고 純粹學問보다 技術的 側面을 強調하며 卒業者의 勞動市場이 擴大되어 나타난 勢力이며, 둘째는 새로 發展되는 知識이 勞

動, 資本, 經營生產 등에서 中樞的 役割을 할 뿐 아니라 個人的 日常生活에서도 한층 基礎的 役割을 함으로서 社會의 中心勢力이 되자 이 知識의 創造處로서 大學의 位置가 確保된 것도 한 要因이라 한다. 세계는 知識人과 一般市民이 大學과 報道媒體를 통해 社會의 現狀維持나 變化指向이나를 놓고 새로운 對決을 함으로써 大學이 挑戰 당하고 있으며, 네제 大學은 國際的 輿論에 對立되는 國家見解나, 消費均衡에 對立되는 生産面의 競爭, 또는 國家와의 關係에서의 個人的 役割論爭等, 社會의 價値와 生活樣式의 再檢討過程에서 不可不 큰 作用을 하게된 變化때문이고, 끝으로 學生이 過去보다 더 自由로운 環境에서 生活할 뿐 아니라 學校나 社會에서 더 行動의이며 남이 設定한 標準型的 「社會化」를 拒否하는 등 그들이 크게 變하였다라는 事實이 大學의 改革을 不可避하게 하는 勢力이 되었다는 것이다.

以上の 새로운 여러 勢力이 오늘의 大學을 더욱 社會的, 實用的으로 變化하도록 壓迫하고 있거니와 이같은 狀況下에서 學生들은 敎養敎育을 한층 實際的 價値評價의 次元에서 過少評價할 개연성을 안고 있다. 前記 Robinson은 美國의 大學生이 60年代에 비해 훨씬 實用的으로 변모하였으며 한가지 例로 60年代에는 歷史學이 學生들에게 가장 人氣있는 專攻科目이었는데 지금은 經濟學이 그러한 科目이 되어 敎養敎育의 理想이 專門的 訓練의 하나에 길을 讓步하였다고 評하고 있다. 이러한 傾向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임은 進學추세나 職業觀 調査 등에서 뚜렷하거니와 아이러니컬 한 것은 最近 몇년 사이에 美國의 Stanford나 Harvard 또는 그 밖의 大學들에서는 學生이 가장 쓸모없게 느끼는 西洋文化史를 必須로 設置함으로써 學生들은 그들의 時間과 父母들이 조달해 주는 學費를 浪費한다는 생각을 질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大學이 위와 같은 改革勢力을 受容할 뿐 아니라 社會改革에 積極 參與해야 한다는 觀點에서, 특히 未來 社會에 對處한다는 觀點에서, 敎育을 計劃하고 實踐해야 한다고 볼 때 學生의 要求에만 左右되지 않는 커리큘럼 構成이 當然히 따라야 한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새로운 勢力과 變化는 專門敎育에 對

해서도 變化를 要求하고 있다. Carnegie 高等教育委員會의 事業으로 「Schein」이 70年代 초반에 行한 專門教育研究에서는 4가지 새로운 方向이 確認되고 있는 바 그것은 첫째 專門教育이 다양한 通路를 거쳐 多様な 專門的 進路에 이룰 수 있도록 融通性있게 改編되어야 하며, 둘째 早期 專門進路의 進入을 可能하게 하는 融通性 있는 改編을 단행하여 專門教育機關에서 始作하는 專門教育을 더욱 向上시키고 多様하게 하며 여러가지 役割의 革新에 刺戟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融通性學際的(interdisciplinary) 커리큘럼을 갖추어 오늘과 來日의 새로운 社會問題에 더욱 副應할 수 있도록 몇개 學問領域을 새로운 專門領域으로 統合해야 하며, 끝으로 基礎 및 應用科學의 水準에서 行動科學과 社會科學을 專門教科 커리큘럼으로 完全 統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改革動向을 위해 「Schein」은 學生의 學習樣式에 가장 適切한 學習모듈(modules)을 開發해야 하며, 自己의 教授에서, 學生들에게서 特色있는 技能과 態度 및 價値를 誘導할 수 있는 資質이 있는 새로운 種類의 教授要員을 確保해야 하고, 아울러 學生의 學習課題에 適切하고 融通性있는 새로운 行政組織 및 節次도 수반되어야 하며, 끝으로 標準的인 解決이 아니라 知覺的 過程에서 教育結果에 對해 自體診斷과 評價的 研究를 遂行하는 등의 課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專門教育이 더 學際的이어야 하며 統合的이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專門分化 때문에 領域間 境界가 너무 堅固하고 社會問題에 격리될 위험 및 다른 專門人과의 交流나 對話, 協助등의 어려움같은 不適切한 現象을 막자는 것이며 여기에는 그와같은 狀況에서 緣由될 非人間化現象에 對한 豫防이라는 意圖가 內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科學의 人間化를 통한 專門分化의 克服
衝擊의으로 急激히 專門分化 되어가는 學問領

域들의 오늘의 現象은 그 變化에 反比例하여 關聯專門人 또는 研究者의 關心을 편협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알고 있는 것만을 읽게하고 읽을 수 있는 것만 읽도록 誘導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人間을 機械化하고 非人間化한다는 念慮가 未來를 關心깊게 展望하는 뜻있는 사람들에게서 한결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 모든 學問分野에서 그 研究와 人間의 關係, 또는 人間化의 問題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이러한 問題는 모든 大學, 特別 學部課程에서 教養教育和 專門教育의 改革에 있어서 하나의 基準原理가 되고 있다. 그런데 人間化의 問題는 具體的으로 道德, 倫理, 또는 人格의 問題도 많이 表現되며 特別 價値觀의 確立 또는 形成을 위한 教育으로 많이 論議되고 있다. 이러한 重要性에 對해 Notre Dame 大學校 總長 Hesburgh(1981)는 價値觀이 없는 限 學問에의 接近은 不可能하다고 하면서 價値觀의 學習은 教養教育을 通해서만이 可能하며 따라서 教養教育은 모든 教育的 努力 가운데 核心의 位置를 차지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 밖에 Georgia 大 副總長 McBee(1980)가 主導한 高等教育의 새로운 動向研究, 또는 日本 廣島大學의 “1980年代의 高等教育”(1980) 등에서도 大學에서의 價値觀 또는 道德의 責任을 크게 強調하고 있다.

科學과 科學的方法이 우리가 사는 世界에 革命을 가져왔고 앞으로의 世界에 對해서도 새롭고 밝은 展望을 가져올 것이 分明하다. 그러나 그것이 自招할지도 모르는 파멸적의 世界를 우리는 우려하고 있는 바 이는 그것들이 價値觀이나 삶의 意味 또는 人間化를 위해 正작 아무 보임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高貴한 것들을 더욱 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科學 또는 科學的方法에 主導되어 遂行되는 學問은 基本的으로 人間과 그의 價値觀에 바탕을 둘 때 비로소 完成된다고 보며 教養教育和 專門教育은 하나가 되고 안팎이 되어야하며 이것은 곧 人間化 過程에 연결되어 오늘의 極端的인 專門分化를 克服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